

2학년 4반 월 독서토론

조이름 : 예슬 (이레/슬)

조원 : 박예진, 최다빈, 강진서, 김혜원

도서명	디자인 사람을 만나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디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이에 관련된 도서들을 검색하다가 '디자인 사람을 만나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이 책이 앞서 말한 궁금증들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p>최다빈: '커뮤니티 디자인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속도이다' 훌륭한 창의업이 단기간 내에 하는거에 급급하다면 심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주변만 봐도 그런 경우들은 많이 보와왔었기 때문에 더 와 닿았다.</p> <p>김진서: '자연, 인공환경 등 여러 도시는 각각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특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우리 지역인 전주도 책에 실린 여러 특제를 처럼 독특하고 재미있는 대표적 특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p> <p>박예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연상이 깊게 남았던 구절은 '평범하게도 이들은 창의성과 목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 영역이라는 것이다.'이다. 디자인이라는 직업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나 그려낸다고 나도 생각하면서 더 연상이 깊게 남았다.</p> <p>김혜원: '커뮤니티 디자인의 출발점은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다. 그리고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는 '장여'로 실현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디자인은 물리적 공간.만.을.계.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깊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p> <p>지역을 변화시키는 커뮤니티 디자인이 삭막한 현대시대의 여동들과 유대감을 형성 하며 사이를 더 따뜻하게 해준다는 책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버려진 공간등이 커뮤니티 디자인을 해서 긍정적인 장소로 변화하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p>

강제원: 없다.

이 책은 내 인식을 변화시키고 하하하나 공감을 형성해 주는 내용이라 읽었다.

김진성: '기준의 축계'에서는 준비된 축계를 관망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구절이 가장 와닿지 않는다.

이유는 기준의 축계들도 충분히 능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다민: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같은 조사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조사를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해서 얻은 문제점을 고쳐도 전작 많은 주민들의 도움을 얻는 힘들 것 같다.

박예진: ~~무엇~~ '디자인은 인간을 배우는 과정이자 미학적 프로세스의 산물'이라는 구절과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인간을 위해서만 디자인을 한다면 환경 디자인, 동물 등 다양한 디자인들은 나오지 않을까를 것이다.

강혜원: 나에게 디자인이란 딱딱하고 혼자서 감상하는 문화라고 느껴졌는데 커뮤니티 디자인을 알게 되고 나서 디자인에 대한 연식이 변해났다. 디자인으로 이웃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내가 왜 커뮤니티 디자인을 몰랐나 후회되겠지! 이제 알게 되어서 부끄럽다.

김진서: 생각보다 다양한 축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 이 책에 실린 벚 아드와 관련된 축제들을 둘러 가보고 싶다.

박예진: 나는 평소에도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 찾아보고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 이번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더 생각보다 더 내 생활에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디자인이란' '정의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씨앗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대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인출 참여가 있고 건축가, 공사 관계자, 문화의 열정이 넘치다며, 이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인출은 지역과 국가들의 조성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 생활 속 곳곳이 문제를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강혜원 : 앞으로 그려나갈 내 미래에 대해 나도 커뮤니티 디자인을 실천하면서 이웃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실현해야겠다. 그리고 그 의미있는 시작을 위해 내 주위의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며 가능성을 열어나아가겠다.

김진서 : 앞으로는 복제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대충 돌아오는게 아니라 제대로 소통하려고 참여하면서 즐거야겠다.

남매진 : 디자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그 종류는 다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즉 내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직업은 매력적이라서 생각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읽어보아게 자료를 수집할 생각이다.

최다빈 : 우리 주변 생활속 공공의 문제들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불편함에 대해 지역이 역할을 열어서 생활이 좀더 개선 되어 불편한 삶을 살수 있게 하고 우리지역에서 생활은 개선을 위한 조사를 한다보면 성실히 임할것이라고 다짐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대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종류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조형디자인, 조형디자인 등 다양하다. 이러한 디자인을 발전 시키고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디자인의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부적절한 과정의 디자인을 통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시스템을 하나 하나 보여주면서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몰랐었던 디자인에 대해 한바탕 더 가까워졌고, 책의 각 파트마다 어떤 디자인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나오는지 이미지가 함께 있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디자인을 나아가기에 적당했다고 생각한다.

